서울·부산 원정쇼핑 광주 여성들 신세계 카드 사용액만 작년 121억

광주지역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대전 등으로 '원정쇼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17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매출액 통계에 따르면 거주지가 광주로 등록된 고객 중 신세계카드를 이용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상품을 구입한 액수는 지난 2007년 53억원에서 2008년 61억원, 2009년 81억원, 2010년 121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사 결과, 타지로 쇼핑을 떠난 대부분의 고객들은 명품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소비했다.

특히 원정쇼핑객의 주머니를 가장 많이 열게 만든 명품브랜드는 샤넬이었고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까르띠에 순이었다.

광주지역에는 루이비통과 구찌, 크리스천디오르, 페라가모 등의 명품 매장이 입점해 있지만 여성들의 '로망'으로 불리며 가장 구매욕이 높은 샤넬과 프라다, 까르띠에 등의 매장이 입점해 있지 않아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등으로 원정쇼핑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것.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명품에 대한 고객 수요는 나날이 높아가는 것이 현실이다"며 "역외매출액은 단순히 신세계카드만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 지역 고객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매출을 올린 금액은 카드이용금액에 4배정도를 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쇼핑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난 원인은

주로 명품구입 샤넬·루이비통·구찌·프라다·까르띠에 順

실제 소비액은 네곱절…대전 미국계 대형마트에도 쏠려

명품구입 외에도 다양하고 값싼 제품을 거주지역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의 경우 광주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상품을 싼 값에 구입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30~40대 여성들의 원정쇼핑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주부 안모(여·46)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모여 대전으로 향한다. 광주에서 2시간 거리인 대전의 코스트코 매장에 가기 위해서다. 이 매장에서는 같은 상품을 백화점보다 최고 50% 이상 저렴하게 팔고 있다. 주부들 사이에 인기있는 프랑스제 르크루제 무쇠냄비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기 기준으로 넓이 22㎝는 15만원 가량, 26㎝는 20만원 가량이면 구입할 수 있다. 백화점에서 각각 41만원, 50만원에 팔리는 것에 비하면 할인 폭이 크다.

영국제 포트메리온 다기세트도 할인행사기간 13만원 가량에 구입이 가능한데다 최근 인기리에 팔리는 미국제 다우니 세제 등 생활용품도 최고 30%까지 저렴해 대용량을 구입 후 친구들과 나누면 교통비를 제외하고도 훨씬 싸다.

주부 박모(여·38)씨는 "세제와 가공식품 등을 다량으로 구매하면 국내 마트에 비해 저렴히 구매할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꼭 친구들과 원정쇼핑을 떠난다"며 "미국계 마트라 수입품도 국내 마트보다 가격도 싸고 종류가 많은 것이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오는 2014년 KTX가 완전 개통되면 원정쇼핑 인구가 크게 증가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더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키려 하지만 백화점 공간이 터미널 부지에 묶여있는 등 한계가 있어 고객 유출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통신비 인하안' 주중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 통신비 인하 전담반(태스크포스)이 이르면 19일 활동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16일 통신비 인하 전담반 관계자는 "19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처 간 조율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번 발표안에 가입비·기본료 인하, 노인·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모듈형 요금제,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앞서 2기 위원회 취임식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 "음성·데이터·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패턴형, 노인과 청소년 등 이용계층형 등 다양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반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과 가입비 등을 직접적으로 내리라고 명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되면 업체가 이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이동통신재판매(MVNO)를 활성화하고, 제4 이동통신사가 나타나도록 유인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가 줄어들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통신비의 개념을 쇼핑·의료·교육·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비용으로 재정립하고, 중고 스마트폰도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7개 저축銀 매각 장기화 가능성

부산銀 고객 농성…실사 중단 매각공고 불투명

보해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중인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업점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9일 목포 보해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농성이 이어지면서 7개 저축은행 예금자 45만명의 금융거래 재개 시기도 차일피일 늦어질 전망이다.

17일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초량 본점으로 내려가 점거 농성 중인 예금자들과 2차 면담을 시도했으나 투자금과 예금을 전액 보호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대위는 책임자 처벌과 예금자 재산 보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설득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해 및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도민 등 저축은행의 매각 공고가 이번 주에도 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보는 당초 지난 12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을 공고하고 내달 중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의 점거 농성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실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보해저축은행 비대위도 부산 비대위와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이다.

서상훈 비대위원장은 "보해 비대위는 피해자가 계속 모여 현재 8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보해저축은행과 연락을 취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위를 통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은 분리 매각된다.

입찰 참여 자격은 옛 삼화저축은행 매각 때보다 한층 완화할 전망이다. 삼화저축은행 매각 당시에는 입찰 참여 기준이 자산 3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이거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 등으로 제한됐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S금융지주 등 대다수 금융지주회사와 대기업계열의 보험회사 및 증권사 등 제2금융권, 대형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기관이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주택대출 고정-변동 금리차 감소

은행채 떨어지고 CD 올라 0.09%로 좁혀

최근 은행채 금리가 떨어진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와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대상과 금리 등을 개선한 고정금리형 대출 신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고정금리형 대출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연 5.26~6.56%로 지난 2월 초에 비해 0.3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3개월 CD 연동형 주택대출 금리는 이번 주 연 5.17~6.47%로 같은 기간 0.3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간 금리차는 2월 초 0.77%포인트에서 이번 주 0.09%포인트로 좁혀졌다.

신한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대출의 금리는 17일 현재 5.13~5.83%로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 5.06~6.46%에 비해 최고금리가 0.6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월 초에는 고정금리형 대출의 최고금리가 0.06%포인트 높았다.

고정금리형 대출과 코픽스 연동형 대출(잔액기준 6개월 변동형)의 최고금리 차이도 2월 초 0.78%포인트에서 17일 0.29%포인트로 좁혀졌다.

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 대출 최고금리도 2월 초 변동금리형 대출보다 0.51%포인트 높았지만, 17일에는 0.01%포인트 낮아졌다.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 대출 간 금리차가 줄어든 것은 고정금리형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변동금리형 대출의 기준금리인 CD와 코픽스는 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광양중동지점 개점

광주은행은 지난 17일 오전 광양시 중동에서 이성웅 광양시장과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광양중동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KJB 광주은행의 143번째 지점으로 탄생한 광주은행 광양중동지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선벨트의 중심도시인 광양시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및 상가가 형성돼 이 지역 상공인 및 주민들의 금융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점식에서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금융허브 역할과 함께 주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쾌적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KJB 광양중동지점이 전남동부지역의 최고 영업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